

불자 세상보기



정 천 구  
서울대지법대 석좌교수

공무원연금 개혁이 최대의 정치이슈로 떠올랐다. 박대통령이 국무회의와 국회시정연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조했고 새누리당이 소속의원 158명 전원 명의로 연금개혁안을 발의한 것이다. 야당은 공무원 사회와의 합의와 타협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개혁안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공무원노조는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왜 개혁안의 연내 통과를 밀어 붙이는 걸까? 사안의 절박성 때문이다. 박대통령이 밝힌 대로 연금수급자가 1983년에 비해 60배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앞으로 8년 동안 48조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정부가 이를 부담해야 함으로 국가재정을 다른 곳

공무원연금 개혁 함께 지혜 모으자

에 쓸 수가 없게 된다. 여당이 발의한 개혁안은 연금지급 개시일을 2031년까지 65세로 늦추는 한편 공무원연금 보험료는 인상하고 수령액은 줄인다는 것이다. 안대로 하면 2016~27년까지 현행보다 47.8조원을 절감한다고 한다.

공무원 연금은 연금가입자의 봉급에서 떼는 연금 보험료와 정부의 보조금을 적립하여 퇴직 후에 연금으로 받는 형식이다. 문제는 연금을 타는 사람이 많아지고 평균수명 연장으로 연금지급 기간은 점점 늘어나는데 들어오는 돈은 적어 적자가 계속 불어난다는데 있다. 적자 눈덩이가 머지않아 눈사태가 되어 우리 모투를 덮치게 되어 있다.

이런 적색신호는 오래전에 나타났다. 2000년 정부는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7.5%에서 9%로 올리는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공무원사회의 반대에 부딪히자 연금 적자를 정부가 메워주는 정부재정 의존형 연금으로 만들었다. 원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출범 당시 모두

근로자가 기여금을 내고 이를 불려서 노후자금으로 쓰게 하자는 구조였다. 그런데 개혁한다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든 것이다. 복지예산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되돌리긴 어렵다. 그 후의 개혁시도들도 이를 넘지 못하고 문제를 오늘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개혁을 들고 나온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개혁의 기회가 또 언제 올지 알 수 없다. 다만 야당과 공무원노조의 반대를 어떻게 설득하고 넘어설지가 관건이다. 집권세력에게는 리더십의 발휘가, 야당에게는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초당적 파트너십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공무원연금개혁에서 집권여당의 개혁드라이브가 사회적 합의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인 점이 있다면 부족한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야당이 도와주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질 때는 아니라

본다. 공무원 노조는 지금 강경투쟁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연금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솔선해서 협조해야 할 때다.

오히려 공무원사회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뒤집어 쓴 무사안일과 부패·무능 집단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승패는 공무원노조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책임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있다. 그 자리는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더십이 중요한 것이다. 진정한 리더는 국가사회의 필요(need)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국민의 욕구(want)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노력이 중요한 이유다.

이와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寺址 보존, 이제 불교계에게 맡겨라

다시 불교 사지(寺址) 보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보 제2호 원각사지10층석탑은 유리보호막이 훼손을 부추겼고 이로 인해 흑색 피각 등 화학적 훼손이 일어났다. 전면에는 풍화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문화재청이 2014년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보존 상태 양호' 평가를 받았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사지학술조사사업 손상현황자료집>을 발간했다. 손상이 심각한 48점 중 17점이 보호시설이 없는 방치 상태였으며, 16점은 보호철책 등 인위적인 접근을 막는 1차적인 보존관리에 불과했다. 훼손 정도는 구조손실, 화학적 풍화, 이끼류, 침식 등 다양했다. 원각사지10층석탑의 훼손도 자료집에서는 다루고 있다.

이러한 문화재 훼손은 사지에 있는 비지정 문화재의 경우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지정 문화재의 경우 도난에서부터 무단 반출 등 전반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사실상 사지와 사지에 포함된 문화재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자료

집을 통해 알 수 있다. 방치된 사지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는 영국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영국은 오래된 교회와 옥의 상징물 등을 민간 NGO로 이양해 관리하고 있다. 영국 보존 NGO인 '내셔널 트러스트'는 연간 9000만 파운드를 모금해 350개의 문화재 건물 등 문화재를 보존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국민이 2000만명 이상이다. 국민들에게 문화재의 우수성과 가치, 보존의 당위성까지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지와 소속 문화재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각 사찰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럴 경우 국보·보물 뿐만 아니라 관리체계에 포함되지 못한 중요 비지정 사지,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 특히 아직 종교적 특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사지의 경우 보존과 관리가 시급하다. 정부와 지자체, 불교계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동국대 불교의학연구소에 거는 기대

건강의 중요성이 어느때보다도 강조되는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불교 가르침에 입각해 심신의 병을 치료하는 의료법 개발을 위한 연구소가 동국대 일산병원내에 10월 24일 문을 열었다. 이름은 불교의학연구소다. 초대 불교의학연구소장에 정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10여명의 전문의 등이 동참했다.

연구소측은 참선과 명상 등 불교수행이 심신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도 입증할 계획이다. 불교와 의학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밝혀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어서 기대가 크다. 또한 한국인에 적합한 맞춤형 치료프로그램이나 템플스테이도 개발할 것이라고 한다.

이 연구소를 잘 활용한다면 불교의학의 새 개념 정립과 함께 실용적이면서 과학적인 치료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전방 활동

에 치유적 근거를 마련할 초석이 될 것이다.

먼저 불교의학연구소는 현대의학의 발전에도 규명하지 못한 다양한 병에 대한 연구를 새로운 각도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고혈압, 스트레스 증후군, 만성질환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불교적 치유방법 모색과 함께 노령사회에서의 건강 증진에 대한 대책 등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불교의 가르침에서 찾는 데 주력하는 것이 좋겠다.

아울러 현재 동국대 일산병원 일대에 들어선 바이오메디칼캠퍼스의 한의대와 약대, 자연대학들과 시너지효과도 충분히 기대된다.

향후 협력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응용분야도 연구분야를 넓힐 것이라는 정인원 소장의 계획처럼 이번 불교의학연구소 개소가 불교계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료기술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일조하길 바란다.

발언대



원택 스님  
백련교문화재대 이사장

어느덧 크스님 열반 21주기가 지났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 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크스님 열반 후 해인사 연화대 대비상으로 밀려드는 수많은 인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드물게 월간 <해인>지가 진보적 논조로 인해 스님들은 싫어하고 진보계의 사회지식인들은 좋아해서 편집실에는 많은 인사들이 드나들곤 했습니다. 그때 <해인>지 편집실에 들르곤 하던 한 신부님께서 "가톨릭은 2000년 동안 400만 명의 신도를 선교했는데 성철 크스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열흘 동안 300만 명을 포교하셨다"고 농담을 하실 정도로 크스님의 열반은 한국 사회에 커다란 감격과 '형 빈 마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크스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고 49재를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현 총무원장 3선 저지와 부정부패 척결을 가치로 한 개혁운동이 일어나 조계사 마당이 투쟁의 현장이 되고 폭력이 난무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수습과정에서 개혁안이 수립되고 조계

종 흥호와 종법이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때 도입된 총무원장, 교구본사주지, 중앙총회의원 선거제도가 오늘 날 어떠한 모습으로 종단에 해악을 끼치는 지 되돌아보는 반성은 별로 없었던 듯 합니다.

1962년에 마련된 조계종 종헌·종법도 승가의 율장 기준이 아닌 세속의 삼권분립 헌법 기준을 종헌에 도입한 선례가 있고, 1994년 개혁입법 수립 시에는 고위직 선출에 세속의 자유, 평등, 비밀 선거를 도입한 것을 획기적인 민주방식으로 생각하였던 듯합니다.

고위직 선출에 있어 선거제도 도입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를 몇 가지 적어 봅니다.

첫째는 선거의 평등성을 내세우다 보니 수계 1년 된 비구도 한 표, 40년 50년이 넘는 대덕스님들도 한 표입니다. 이러니 산중 어른 스님들의 권위는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둘째는 본사주지가 대중의 선거로 뽑히다 보니 기대와는 반대로 주지 '원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주지스님이 대중적으로 선출됐으니 민주적으로 절 살림을 살고 말사의 자수성을 살려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현실은 다음 주지선거를 대비하는 주지 '독재'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셋째는 1994년 처음 선거에는 후보자가 사관으로 비판받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유권자가 더 비판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넷째는 일찍 출가한 스님은 30대 후반이면 벌써 총회의원에 뜻을 두고 선방이나 대종이 있는 곳을 찾다니며 얼굴 익히기에 나서니 수행은 언제 할 수 있겠습니까? 수행보다는 정치에 전념하는 모습이 한심할 뿐입니다.

다섯째는 산중 선원의 귀중한 수행풍토는 점점 어지럽혀지고 고위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스킨십 장소가 되어가고 있는 비극적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는 본사주지의 연령이 젊어짐으로써 타종교 수장과 지역사회의 원로들과의 교류에 문제가 없었지만 그 간격은 존재합니다.

지금의 고위직 선출제도는 보이지 않게 조계종의 종지 중흥을 더 없이 추락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승려의 수행화가 되어도 모자란데 전 승려의 정치화로 치달고 있으니 우리 모두의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조계종처럼 교학과 선수행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과정도 없이 세월이 지나면 무조건 승남 자격이 인정되어 선출직이 출마하는 경우는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제도를 갖추어가는 초입에 있지만

장래는 아득합니다. 이 현실을 타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자연히 가톨릭의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에 눈이 멈추게 됩니다. 콘클라베 제도는 750여 년 동안 존속해 오면서 오늘날의 가톨릭 종립에 크게 공헌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를 보면서 "여기에 모인 120여 명의 추기경님들은 누구나 다 교황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들이구나! 세계 12억 가톨릭 교도들의 최고 어른이 될 수 있는 지도자가 120명이나 되는 조직이 세계 어느 곳에 있겠는가?" 하는 부러운 생각을 하였습니다.

교계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조계종 내외의 사부대중들이 존경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는 제도는 전 대중의 선거에 의한 투표가 아닌 율장의 '장로회'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혁명적 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로회'를 신설하여 소임직을 선출하고, 모든 선거제도는 파괴해야 조계종이 중흥의 터를 닦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조계종만의 '콘클라베'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글은 해인사 백련암이 발간하는 월간 <교경> 11월호(통권 19호)에 수록된 글입니다. 발행처의 양해를 구해 일부를 발췌해 실었습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해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인사홍 연발담당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연발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발담당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울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영남범패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14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아래**

**<진주교육원>**

- \* 입교일시 : 2014년 12월 1일(월요일) 오후 3시
- \* 교육장소 :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사가 406호
- \* 수강일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6시
-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 교육내용 : 1 상용의식 및 재의식 2 사물다루는 법
- \* 수강자격 : 식발범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 수 강 료 : 월 10만원(교재비 별도)
-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 문의전화 : 055) 747 - 8419
-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검색해 보세요

**영남범패불음원장 원명 합장**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영숙)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허리·팔·다리·무릎·어깨 등...  
**통증이 있으시면**  
관절통 부위에 문질러 발라주시면 고통 끝!

글루코사민 오메가3 크림은 관절의 연골조직을 강화하고 충격흡수를 도와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 손상된 관절연골 재생 및 세포조직을 환원 작용한다.

**효도선물**  
글로코에이

**문질러 발라주세요**

- ▶ 허리, 팔, 다리, 무릎, 어깨에 통증이 있으신 분
- ▶ 근육통이 있으신 분
- ▶ 반복작업을 계속하는 기능공 직장인
- ▶ 수술후에도 통증이 있으신 분
- ▶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신 분
- ▶ 골프,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

**세상에 이럴수가 통증이 싹~**

120ml × 2개 가격 30,000원  
금강닥터사 / 전화: 02) 2271-1441  
농협은행 015-01-415953 최성욱